

해장국 이야기



여운규 차장
접수상담팀

점심 때 일이 있어 낙원상가에 갔다. 밥은 먹고 들어가야 하겠기에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곳을 찾는 내 눈에 허름한 식당 하나가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지나온 세월이 느껴지는 낡은 2층 건물에는 <소문난 추어탕>이라고 쓰인 허름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간판에는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옛날 조미료 상표가 옛 영광을 기억하는 듯 함께 그려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 집은 막걸리 한잔 하느라 종로3가 쪽을 기웃거릴 때 오가며 본 기억이 있는 집이었다. 호기심이 생겼다. 과연 소문난 추어탕의 맛은 어떤 것 일지. 저리도 오래된 조미료 상표를 그대로 간판에 붙여놓을 정도면 엄청난 내공의 노포(老鋪)(편집자 주 :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가 아닐까 하는 기대였다. 살짝 머뭇거리기도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소문이 났다는 그 추어탕은 정작 팔지 않았다. 그 어둡고 오래된 가게의 메뉴는 단 한 가지. 우거지를 넣고 끓인 해장국이 있을 뿐이었다. 가격은 2,000원. 믿을 수 없는 싼 값이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싼 밥값이 아니라 식당을 채우고 있던 손님들이었다.

나는 그 밥집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제일 어렸다. ‘젊은 손님’이란 말이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그냥 나는 어린애였다. 연세를 짐작하기도 어려운 어르신 열댓 분이 저마다 둥근 테이블에 너나없이 섞여 앉아 계셨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테이블을 찾아았는데, 내 등 뒤를 따라온 음식이 바로 내 앞에 놓여졌다. 전 세계 어느 식당에도 없는 초스피드 패스트푸드라고나 할까.

두부 몇 조각과 우거지가 들어간 뚝배기, 공기밥 한 그릇, 허여멀건한 깍두기 한 접시가 전부인 상을 받고 국물을 한술 떴다. 그 옛날, 훈련소 입소 첫날 먹었던 ‘배추두부찌개’를 연상시키는 건진찜질한 맛이였다. 고춧가루보다 사카린을 더 많이 넣은 것 같은 깍두기도 그저 얼큰할 뿐, 맛있는 김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거기서 먹음직스러운 건 오직 밥 그 자체였다. 하얀 쌀밥만큼은 금방 한 것처럼 기름졌다. 낡은 건물, 멀건 국물, 말없이 그걸 먹고 있는 연로한 손님들 사이에서 하얀 쌀밥의 존재감은 이질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빛나는 것이었다.

묵묵히 밥을 먹던 내 앞자리에 어르신 한 분이 비틀거리며 앉았다. 역시 음식은 어르신 등 뒤를 따라와 놓였다. 어르신은 수저를 들다 말고는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여기 깍두기 말고 다른 김치는 없어요?” 했다. 2천 원짜리를 드시면서 어인 까탈이 실까 하던 생각은 어르신의 다음 말씀에 사라졌다.

“내가 이빨이 없어서 이걸 못 씹어...”

아줌마는 말없이 밥공기 하나를 내려놔다. 거기엔 깍두기 국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르신은 아무 불평 없이 깍두기 국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천천히 밥술을 움직였다.

2천 원을 돈통에 넣고 거리로 나섰다. 길거리엔 많은 사람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그런 식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듯한 발걸음이었다. 나는 방금 빠져나온 낡은 건물을 다시 돌아봤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었다. 언젠가는 비집고 들어가야 할 자리에, 나는 너무 일찍 앉아 있었던 것일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쌀밥에 윤기가 흘러서 그랬을 거라고,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